

“편지 쓰듯 써낸 글... 4·3 아픔 마주했다”

4·3 때 아버지·여동생 잃었지만 잊고 산 그날 아픔
4·3트라우마센터서 치유 한걸음... 글로 안정 찾아

당신의 삶이
이야기입니다

(8) 4·3희생자 유족 김옥택씨

“아버지 얼굴도 알듯 말듯한데 마음이 불타 때부터 기억이 생생합니다.” 1948년 12월, 겨우 여섯 살이었던 김옥택(81) 씨에게도 잊히지 않는 날이다. 별걸게 치솟는 불을 피해 학교 마당에 모였지만 때때로 불바람에 사방이 후끈거렸다. 마을은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피난을 가라’는 말에 이모가 살던 함덕으로 몸을 피했지만,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제주 북촌에 ‘당팟’이라고 있습니다. 그 밤에서만 200명도 넘게 죽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그때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홉 살에 장사... 살아 내야 했던 그때= 제주 북촌이 고향인 옥택 씨는 제주4·3 희생자 유족이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잃었다. 피난을 오가며 제대로 먹지 못한 세 살배기 여동생은 집에 온지 얼마 안 돼 숨을 멈췄다.

다 타버린 집에 남은 거라곤 빌레에 던져진 이불 한 장이었다. 급한 대로 움막을 지어 옥택 씨네 다섯 식구를 포함해 일가친척 13명이 함께 살았다.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다. 아홉 살에 장사를 시작한 옥택 씨는 “당시엔 9살까지 차비를 받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해녀가 잡은 소라를 사서 삶아 대어섯 개씩 꿰어주면 (지금의) 동문로 터리에 가서 팔았다”고 했다.

고향이 북촌인 남편도 같은 처지였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 고(故) 부철규 씨는 제주4·3 때 어머니와 큰 형, 큰 형의 딸인 조카를 잃었다. 중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떠난 서울에서 안경 가공 기술을 배운 철규 씨는 10년 만에 찾은 제주에서 옥택 씨를 만났다. 둘은 결혼했고, 함께 서울길에 올랐다.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모았다. 남편 철규 씨는 서울에 있던 한 백화점에서 일하다 안경사로 18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5년쯤이던 1972년, 마침내 부부는 제주에 돌아와 도내 최초의 안경점을 차렸다. 그렇게 살림을 일궈고 네 아이를 키워 냈다.

▶‘트라우마’인 줄 몰랐던 아픔... 치유 한 발짝= 삶은 나아졌지만 4·3의 아픔은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머릿속에 생생히 남은 ‘충격’을 제대로 쓰다듬지도 못했다. 그러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치유에 다가섰다. 2020년에 문을 연 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3 때 겪은 일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30명이 모여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데, 얼마 말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못 하겠다고 했지요. 그때 이후로 한두 달은 마음이 불타고 못 살던 때만 생감이 납니다. 그게 트라우마였던 모양입니다.” 옥택 씨는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마음치유프로그램 ‘4·3이야기 마당’에 처음 갔던 날을 이렇게 떠올렸다.



4·3 당시의 아픈 기억을 글로 쓰며 풀어낸 김옥택 씨가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문학 치유 프로그램 작품집에 실린 자신의 글을 보여주고 있다.

뒤늦게 끄집어낸 트라우마는 문학과 미술로 풀어냈다. 그는 지난 해부터 4·3트라우마센터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아픔을 가까이 마주했다. 입으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손으로 할 수 있었다. 옥택 씨가 쓴 ‘총성과 어머니 비명’에는 남편 철규 씨가 중학교 동창 현기영(4·3을 소재로 한 소설 ‘순이삼촌’의 작가) 씨에게 북촌 이야기를 전했던 일도 담겨 있다.

70년이 흘렀지만 4·3은 여전히 아픔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북촌에 있는 한 친척

도 4·3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호적에 등록돼 있어 여태껏 4·3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잘 해결될 것 같아 다행이지만, 진짜 잘 돼야 합니다.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입니까.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70년 넘는 세월을 견뎌야 했으니 말입니다.”

오는 4월 3일은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다. 옥택 씨를 비롯한 유족 8만8533명(지난 2월 기준 공식 인정)이 또 한 번의 서글픈 봄을 맞는다. 김지은기자

농촌 부족 인력 베트남서 긴급 수혈 도, 어제 베트남 현지서 협약 체결... 2년 간 유효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위민농협 최우선 배치

제주도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남딘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베트남 남딘성에서 이날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김희현 정부부지사가 참석했으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기본협약과 세부 협약을 맺었다.

제주도와 남딘성은 지난달 22일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약 기간은 3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2년이다.

기본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도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인권보호와 국내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남딘성은 베트남법에 근거해 행정시의 계절근로자 조건에 따라 근로자 선발·교육·송출·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부협약서에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채용기준, 근로조건, 숙소 및 생활조건, 입·출국 비용지원과 계절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처리와 유해의 베트남 송환 지원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농작물 재배는 계절(시기)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작물별 특성을 반영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된 위민농협에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최우선 배치하고, 일반신청농가에도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주도에 배정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인원은 총 267명(MOU 86명, 결혼이민 181명)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인턴사원 0명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업무내용:

-카툰뉴스 제작 및 각종 인포그래픽·디지털 삽화 제작

-SNS 플랫폼별 콘텐츠 기획 보조 작업

▶인턴기간

2023년 4월 10일~12월 31일

※ 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참여 가능)

제출서류: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면허 사본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4월 5일 수요일 예정)

▶서류접수:

halla2530@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3월 31일(금) 18:00까지

▶문의: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www.kepco.co.kr

연간 전기소비량을 10% 절약하면, 에너지수입액의 7%를 절감하고 무역적자는 약 60%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2년 상반기 전력소비량 기준)



나는 지금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중!

에너지를 절약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의 내일을 위한 위대한 힘이 됩니다

내일을 지키는
10가지 방법!

1. 겨울 실내온도 18~20℃ 지키기
2.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입기
3.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하기
4. 전기장판 온도 낮게 조절하기
5. 전력피크 시간대 전기 사용 자제하기
6.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우기
7. 고효율 조명 쓰기
8. 빈 방의 전등 끄기
9. 에어컨 플러그 뽑기
10. 안 쓰는 멀티탭 끄기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